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5일 프레스 오픈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갔다. 2전시관에서 만나는 말레이시아 작가 그룹 '팡록 슬람'의 판화 작품 '광주 꽃피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제14회 • 광주비엔날레 •  
• 14TH • GWANGJU • BIENNALE •  
• 2023 • 4 • 7 • ..... 7 • 9 •

**물처럼  
Soft and Weak  
부드럽고  
like water  
여리게**

광주비엔날레 관람 이렇게

- 전시 기간: 2023년 4월 7일-7월 9일
- 전시 장소: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예술공간 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 관람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입장 마감: 오후 5시 30분) 매주 월요일 휴관 (4월 10일은 오픈), 국립광주박물관은 휴관 없음
- 티켓 가격: 성인 1만 6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 사전 예매 할인 성인 1만 2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3000원 (4월6 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티켓정보 페이지와 티켓링크, 네이버 예매 등에서 구입 시 현장 판매보다 최대 40% 할인) 2일권 2만 4000원 (개막 후 현장 판매) 비엔날레 전시관 이외 무료 관람, 파빌리온 무료 관람
- 관람 문의: www.gwangjubienale.org, 062-608-4114

QPICKER 오디오 가이드 QR코드 스캔

Audio guide for 14th Gwangju Biennale

# 광주정신·기후문제 다양한 주제들...작품에 스며들다

## 광주비엔날레 프레스 오픈

### 전 세계 79명 작가 참여

### 아마존 만나고 신체드로잉 체험

### 새로운 전시공간 구성 눈길

꽃으로 다시 피어난 광주의 오월, 아마존 열대 우림과 물의 환상적인 조우,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마오리족의 직조 기술, 광주정신의 새로운 해석과 확장,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현재와 미래,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조상의 목소리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작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다. 세계 각국의 선(원)주민들의 몸에 박힌 내력은 현재로 이어지고, 광주는 억압과 차별이 존재하는 곳에 연대의 의미를 부여한다.

5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 프레스 오픈에서 공개된 올해 참여작품들은 현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주제를 담담하게 표현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라는 주제에 조응하듯 강렬하고 압도적인 작품 대신, 이숙경 예술감독의 말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물길을 바꾸고, 바위를 녹이는 물의 속성"처럼 스며들듯한 작품들이 많

다. 천천히 숙고하며 관람하기는 좋지만, 사람들이 비엔날레에 기대하는 강렬하고 인상에 남는 작품이 적은 점은 아쉽다.

79명(팀)이 참여한 이번 비엔날레는 전시장 구성에서 기존 비엔날레와 차별성을 보였다. 또 짧은 기간 열리는 비엔날레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벽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것도 특징이었다. 또 전시장을 잇는 통로와 브릿지에도 작품을 설치했다.

비엔날레 광장의 기존의 5전시실에서 시작된 전시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느낌을 주는 공간 구성이 눈길을 끌었다. 과감하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작가이자 치료사인 블레베즈웨인 한 명의 작가에게 공간 전체를 제공했다. 영상, 설치가 어우러진 작품은 마치 어두운 숲에서 빛이 솟아나는 듯하며 영성과 치유의 정서를 전한다.

광주 정신의 확장된 외연을 만나는 1전시관 '은은한 광륜'은 한국 목판화에서 영감을 얻은 말레이시아 작가 집단 '팡록 슬람'의 작품 '광주 꽃피우다' 연작이 눈길을 끌었다. 5·18 기념탑, 오월 영령 사진 등 광주의 상징물을 '꽃'으로 대체해 펼쳐보인 작품은 깊은 울림을 준다. 또 그들이 영향을 받은 오윤의 작품을 함께 배치해 이

해를 도왔다.

방콕 출신 타스나이 세타세리 작가의 작품들은 강렬한 색채가 눈길을 끌었다. 승려들이 입는 가사를 대형 판에 붙이고 그 위에 콜라보 한 작품은 화려함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시각장애인들과 작업한 엄정순 작가의 '코 없는 코끼리' 등은 철관 조각을 조립한 후 섬유로 외피를 감싸 관람객이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밖에 이주와 집의 문제를 설치로 표현한 광주 출신 유지원의 작품과 누군가에게서 받은 헌웃으로 만든 작품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겨본 마우고르자타 마가 타스의 작품, 전남여고생들과 작업한 김순기의 작품도 인상적이다.

전통의 재해석에 대한 다채로운 시선을 보여주는 '조상의 목소리'에서는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면면히 이어오는 전통에 대해 이야기한다. 16세기 유럽인들에게 끌려간 선조들을 상기시키는 독특한 도자 작품과 호주 마오리 민족의 전통 직물 직조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카바레를 연상시키는 붉은 방에서 이슬람의 세밀화를 선보인 바킵 부비카노바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또 형형색색의 도자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데이비드 정크 이의 '나이 모든 색' 등을 만난다.

이 공간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

다. 한국 전통악기와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 악기를 제작한 타렉 아투이의 작품을 직접 연주할 수 있고 자유롭게 곡선을 그리며 신체 드로잉을 경험하는 이견용의 '바디스케이프'와 구슬과 레이스를 여성의 몸에 붙였던 김구림의 '바디 페인팅'은 관람객이 직접 장신구를 만드는 등 체험할 수 있도록 재해석했다.

이주, 디아스포라 담론을 만나는 '일시적 주권' 섹션에서는 광주의 고려인마을의 현재와 과거를 담은 고이즈미 메이로의 영상작업 '삶의 극장'이 눈길을 끌었다. 또 '행성의 시간들'은 지구라는 집을 함께 쓰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통해 환경과 생태 위기를 생각해 보는 공간이다. 아마존 우림을 기록한 세밀화 드로잉 등이 인상적이다.

한편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유물과 관련한 작품들이 전시되며 무각사에서는 명상적인 작품들을 관람객을 만난다. 예술공간 집에서는 부부부 소재로 한 나임 모하이멘의 영상 작품이,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에서는 환경을 소재로 한 작품이 전시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파빌리온 프로젝트' 전통·소수민족 문화 아우른다

## 네덜란드·캐나다·스위스 등

### 9개국 참여, 역대 최대 규모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미술축제 베니스비엔날레가 운영하는 국가관처럼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기관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 자국의 큐레이터, 예술가 등과 함께 전시를 꾸리는 기획으로, 광주의 다양한 예술공간과 지역 큐레이터 등이 협업을 진행한다. 첫해였던 지난 2018년에는 필리핀 등 3개 국가가, 2021년에는 스위스와 대만 2개국이 참여했다.

올해는 네덜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역대 최대 규모인 9개국이 참여하며 지역 협력기관으로는 광주시립미술관, 이아남 스튜디오 등이 함께 한다. 각 국가별 파빌리온은 동시대 화두인 기후 문제와 자국 전통, 소수민족 문화 등을 아우르면서 본전시와 호응하는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네덜란드(광주시립미술관)는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CICC): 멸종 전쟁'을 주제로 기후 범죄와 관련, 군사 산업 단지를 고발한다. 군사전선과 멸종 동물의 이미지를 융합한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전시장을 가상 법정으로 변신시켜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부와 기업을 재판에 회부하는 '공판 퍼포먼스'도 세 차례 진행한다.

스위스(이아남 스튜디오)의 'Spaceless'는 스위스와 한국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진작가 8명



이강하미술관에서 열리는 캐나다의 파빌리온 프로젝트.

(이강하미술관 제공)

이 참여한 프로젝트로 작가들은 신자유주의 시대 도시 건축물과 가상의 공동체와 풍경을 포착해 50점의 사진, 비디오, 설치미술로 선보인다.

이탈리아(동국미술관)는 '잠이 든 물은 무엇을 꿈꾸는가'를 주제로 카밀라 알베르티 등 5명의 작가가 물의 은유를 통해 인간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관계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공존을 제시한다. 영상, 사운드, 조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전 연령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화, 현실이 되다'를 주제로 열리는 캐나다 파빌리온(이강하미술관)은 캐나다 아누이트 미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기획으로 국내에서 최

초·최대로 열리는 아누이트 미술전이다. 킨게이트 소속 28명 작가들이 작업한 90점의 드로잉과 조각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로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지원했다.

중국(은암미술관)은 중국국립미술관이 '죽의 심원(竹意心源: 배부로 보는 마음의 공간)'을 주제로 중국 문명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대나무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파빌리온을 운영한다.

프랑스(양림미술관)파빌리온은 지난해 열린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알제리계 프랑스 작가 지네브 세디라의

작품 '꿈은 제목이 없다'를 한국에 맞게 재구성해 선보인다.

이스라엘(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은 '불규칙한 사물'을 주제로 새롭게 해석한 사물의 존재에 대해 탐구하며 폴란드(10년 후 그라운드, 갤러리 포도나무)는 '포스트 아티스틱 어셈블리'(Postartistic Assembly)를 주제로 진행한다. 우크라이나(국립아시아문화전당)는 '우크라이나: 자유의 영토'를 주제로 자유를 향한 여정을 담은 영화 세 편을 상영한다. 더불어 양림동의 갤러리 포도나무에서도 우크라이나 프리필르머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무료 전시 음성 해설 서비스

### 오디오 플랫폼 '큐피커' 활용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무료 전시 음성해설 서비스를 통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주)큐피커(대표이사 정태문)와 협력, 전시 오디오 가이드를 준비했으며 20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모바일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 '큐피커(Qpicker)'를 통해 관람객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번 오디오 가이드에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79명의 작품 해설 ▲이숙경 예술감독이 선정한 20작품으로 엄선된 하이라이트 코스 ▲2일권 티켓과 연계한 1박2일 예술여행 코스 등 기획코스가 담겼다. 더불어 파빌리온 국가별 전시 소개 등도 만날 수 있다.

오디오 가이드는 국·영문으로 제공되며 이어폰이 없어도 수화기 모드를 통해 전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앱 사용 역시 간단하다. 위치 기반 기능을 탑재하여,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위치를 파악해 주위의 전시 장소를 보여준다.

앱을 실행한 뒤 전시장 내에 적혀있는 작품 번호를 보고, 화면에서 해당 번호의 작품 해설을 선택하면 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